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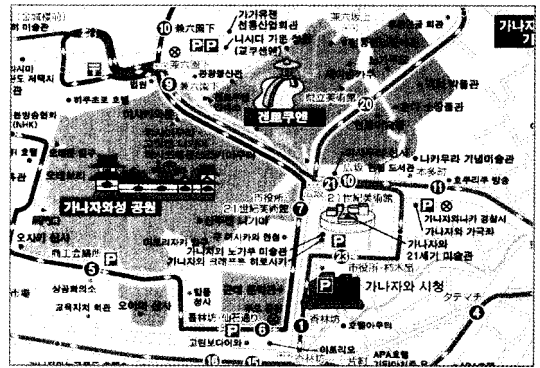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金澤)

이중훈 |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

## I. 가나자와(金澤)

### 1. 가나자와 현황

- 가나자와시는 지형학적으로 일본의 중간 지점인 호쿠리쿠(北陸)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약 45만의 인구를 가진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해안도시이다. 가나자와는 사찰마을이나, 성(城)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일본의 중세도시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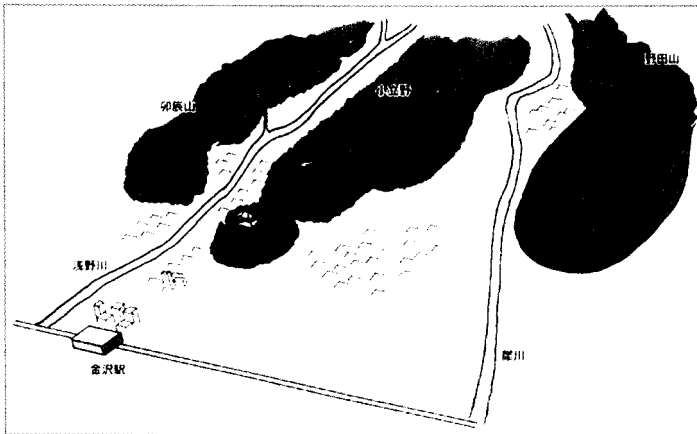
### 2. 가나자와시 경관정책

- 가나자와시의 경관정비는 단순히 관광객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 환경미화, 문화예술, 기회창출 등 정주환경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을 받지 않아 전통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매우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본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현지 자료조사를 위해 '09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가나자와, 다카야마, 시라카와고를 방문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다.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옛마을 풍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 가나자와시의 도시경관관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정책의 추진과  
둘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1〉 가나자와 경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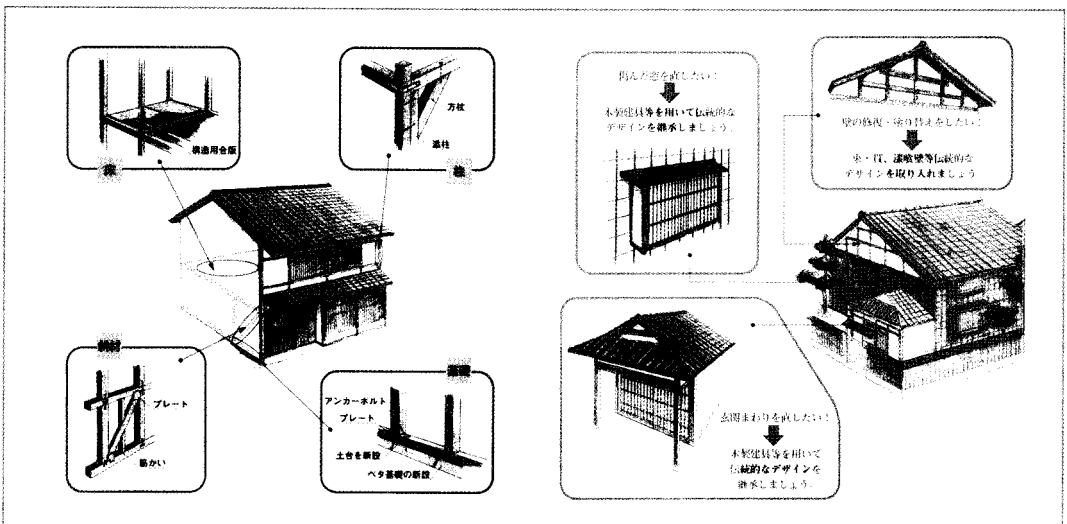
-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전통환경보존조례, 1974년 문화재보호조례, 1977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 1989년 :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1994년 : 코마치나미 보존조례, 1997년 : 사면녹지보존조례, 2002년 : 조망경관보존조례, 사할풍경보존조례, 2005년 야간경관보존조례, 가로경관보존조례

1) 옥외광고물 조례

-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제정목적 - 아름다운 경관 유지  
매주 1회 광고물 심의회를 개최하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심의회에서 개선을 유도시키고 있다.
- 녹색지역의 경관에서는 건축물의 색도 동일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색채를 가나자와 지역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주민의 9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야간경관지역에서 상업지역은 밝게, 그 외 지역은 어둡게 조절하도록 한다.

2) 마찌즈구리 협정 - 마을가꾸기

- 바닷가와 시내도심의 사인형태는 구분하여 설치된다.
-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사업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며, 시에서는 청소도구 및 음료수, 타올 등을 지원한다.
- 가나자와 주변환경의 조화를 위한 도로표식 개선 - 도로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안내표식 개선, 문자축소, 안전성 검토, 안내사인의 크기를 축소한다.
- 가나자와 마을 가꾸기 중심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그림 2〉 건축물 복원 메뉴얼

- 설계자(연출가) - 시민(주역) - 사업가(기업, 지역단체, NGO) - 시(행정, 조정자 역할)가 협력을 통해 활동한다.

### 3) 건물개선 디자인 제시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물디자인 개선방안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4) 색채기준

- 원색(R, Y, YR), 형광색 등 금지색 지정, Y계열에서 채도가 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원색(R, Y, YR)이외의 색은 채도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상표의 원색 면적이 넓은 경우 건물의 20% 이상 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통건조물이나 자연소재에는 착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조건조물이 많아 나무색(소재색)을 권장한다.
- 금지색으로는 노랑, 보라, 적색계통의 색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5) 경관서포트 제도

- 가나자와시는 시민과의 경관학습, 경관교육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여 개선효과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모색한다.

## 3.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 전개

### 1) 세계도시 구상과 도심 르네상스 계획

- 베이징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가나자와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이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 쇠락한 시골마을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였다.
-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자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

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의 저하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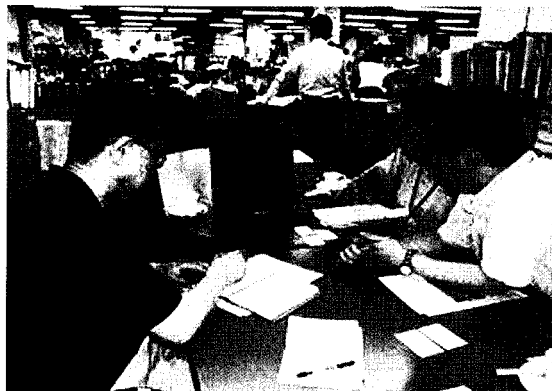
-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1995년 '가나자와 세계 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하였다.
- 이는 대규모 도심의 급속한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① 제1차 기본계획 (1998년~2003년)

- 테마 : 발전과 전통이 조화된 활력 있는 중심시가지의 형성
- 기본방침 :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하여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건는 마을'만들기와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 환경 형성
- 도시기반 정비 추진에 의한 활기 창출

② 제2차 기본계획 (2004년~2008년)

- 테마 : 마을안의 주거와 교류의 촉진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생활의 즐거움을 실감하는 정착 추진  
건강한 상점가, 도심 비즈니스의 형성  
마을 안의 교류활동



〈그림 3〉 가나자와 시청 도시정비국 브리핑

- 가나자와는 지역골격을 유지하는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수로와 조망을 배려한 도로 등 역사적인 도시구조를 비롯한 중심시가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화적 유형 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능, 전통공예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무형자산 등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고, 활기차게 사람이 살고, 모이고, 어울리는 도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가나자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와, 활기와 교류가 넘치는 중심시가지불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 4〉 겐로쿠엔 정원 입구



〈그림 5〉 겐로쿠엔 정원

## 2) 경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 ① 전통 환경보존지구 정비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존구역 내 고층건축물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계자가 직접 경관 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어 공간변경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가나자와 시는 혜택 받은 자연과 지형을 배경으로 중심시가지의 약 절반 이상을 '전통 환경 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가로경관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였다.
- 2006년 3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정비 자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후, 경관과 교통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나자와 만의 도로 표식 간판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통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전통 환경 보존 지구로 정하고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의 개성 풍부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고마치나미의 '고'는 '역사적 경관과 정서를 지닌 가로'를 뜻하는 '古'와 '작다'는 의미의 '小'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고마치나미(小町並み)'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사무라이 가옥, 옛 가옥, 사원 등 건축물이나 유사 양식을 계승한 건축물이 모여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골목은 물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을 선정해 경관을 정비했다.
- 고마치나미 사업은 ①보존이 필요한 가로를 '고마치나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②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기준'을 정하고, ③보전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④시가 개축과 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역 내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마치나미 보전 건조물'로 등록하고, 시와 소유주가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보전 기준은 주민과 전문가(대부분 가나자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마치나미 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가나자와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주민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고마치나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다. 히가시차야 도오리

는 이제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이미지 공간이다.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箔), 구타니 자기(九谷焼)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다.

- 이 과정에서 건축·조경·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 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분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실비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 디자인 등의 경관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었다.



〈그림 6〉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지구

## ② 지역 보행 공간 정비사업

- 지역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역사유산이나 상점가를 즐기며, 둘러볼 수 있도록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비에도 모두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자와 무사 가옥 주변의 공중전화 박스와 공중화장실은 옛 무사 가옥의 구조와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③ 아트퍼니처 설치

- 가나자와 시의 아트퍼니처 설치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가나자와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의





〈그림 7〉 공간, 시설물(인도, 브라드)

정책으로 가나자와 역에서 21세기미술관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예술성이 넘치는 조각 작품 및 공예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가나자와 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공모한 뛰어난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기업의 소원도우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가로경관의 매력을 높여 지역 전체에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 ③ 가나자와 시냇물 정비사업

- 가나자와시 대로상의 정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 녹음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하였다.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수로를 적극 끌어들이 시냇물이 흐르는 도심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더욱 높였다.



〈그림 8〉 가나자와 시내 수로조성



〈그림 9〉 가나자와 무사촌에 조성된 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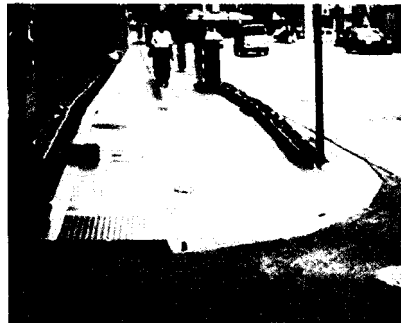
#### ④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조밀한 구성

- 지역의 공공디자인 개발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조밀한 구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물, 바람, 녹음 등 풍부한 자연과 이들 요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유지되어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서 질 높고 풍부한 거주공간과 쾌적함이 나온다.

- 가나자와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심의 도로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통행의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활발한 지역 교류활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공간에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공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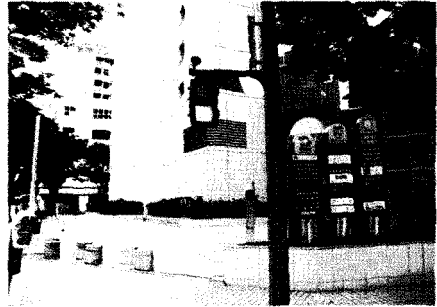
〈그림 10〉 차도와 인도의 턱이 없는 보행자 중심공간

-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가나자와시는 전통 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는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림 11〉 가나자와 성주변 공원



〈그림 12〉 가나자와 시내 음성정보 신호등

- 가나자와 시는 특히 중심시가지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및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시민 교류 활동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역교류 활동사업으로는 마에다 자료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문예관, 가나자와 노카쿠 미술관 등 교류 활동 시설을 개설하고 이들 문화 시설에 있어 합동기획전 전개 및 공동입장권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회유성 유도 및 시민 참여활동을 유도한다.
- 시가 앞에서 끌고 시민이 뒤에서 미는 전통 문화 보존 정책과 시민들의 3분의 1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만들 만큼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는 '문화 도시' 가나자와 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림 13〉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가나자와 시를 진정한 문화 도시로 만든 것은 시민예술촌이다. 시는 방직공장이 폐쇄되면서 남은 9만 7000㎡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를 시납여 지난 1996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

로 개방했다. 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들어섰던 공장은 문화 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탈바꿈 했고, 주차장은 미술 작품공간과 공원으로 변신했다.

- 예술촌은 시민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개방한다. 사용료도 6시간에 1000엔에 불과하다. 직원은 밤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4〉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4. 시사점

-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와의 합의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와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을 형성하는 창조도시를 조성하였다.
- 자연의 요소를 공공디자인에 활용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가로 시설물에 지역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 가로공간의 기능성·시각성·기호성·무대성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감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II. 다카야마

### 1. 다카야마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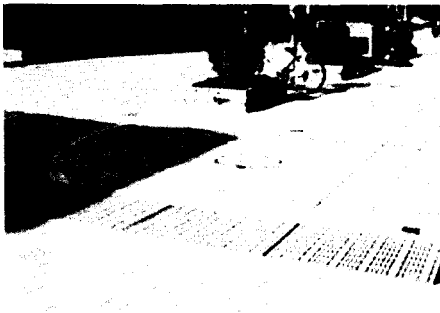
- 다카야마는 기후현(岐阜縣)에 속해 있으며, 일본열도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9만 7000명의 소도시다. 에도시대에 지어진 격자창의 가옥들과 전통적 산촌풍습이 고풍스럽게 남아있어 '작은 교토'라고 불린다.
- 메이지(明治)유신(1868) 이후 여러가지 변천을 거쳐 1936년에 다카야마시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행정구역들과 통합된 후 2005년에 주변 9개 구역과 통합, 도쿄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큰 도시가 되었다.
- 최근에는 "살기 좋은 도시는 방문하기 좋은 도시" 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 거리의 보존과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장벽 없는 도시 조성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 인터넷 정보, 안내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다카야마시의 도시디자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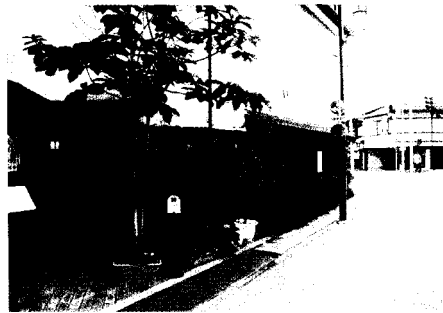
### 1) 배리어프리디자인

- 다카야마시는 '살기 편한 도시는 놀러가기 편한 도시' 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벽없는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광 도시가 되도록 장벽 제거를 위한 시책에 주력하고 있다.

다카야마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정보에서의 장벽 제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5〉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트랜치 시설



〈그림 16〉 인도와 차도의 턱 제거

### 2) 장벽 없는 도로 만들기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차도와 인도 간 턱이 5cm 이상인 곳을 2cm 이하로 낮추거나 없앴으며, 네거리 등에서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도로 옆 빗물받이 덮개 창살은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1cm 이하로 촘촘하게 좁힘으로서 안전성을 높였다.

### 3) 휠체어 대응 화장실 설치

- 시가지에는 깨끗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40개 이상 설치되었으며,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도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배설기를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림 17〉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 4) 관광지 도로표시

- 시내 도로 주요위치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등 4개 국어로 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8〉 방문객을 위한 정보서비스 픽토그램 설치

#### 5) 길거리의 벤치

- 시가지 중심부에는 많은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 길거리 벤치 설치

## 6) 이동수단 지원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보조기구를 구비하거나 휠체어에 대응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3.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 1) 산마치 전통건축물 지구

- 다카야마는 오래된 마을의 모습이라는 뜻의 '마쓰나미' 지역의 중심적인 가치이자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의 다양함이 마을의 모습에서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다카야마 시내에 흐르는 미야가와(宮川)강 동쪽에는 전통건축물 거리가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도시대의 집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산마치 지역으로서(이치노마치, 니노마치, 산노마치) 성곽도시인 다카야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右圖 20)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 술양조장과 전통공예품 판매점 및 격자집들이 이어진 곳으로 이 지구는 국가로부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지정 되었다.
- 다카야마는 도시전체가 전통집과 거리로 채워진 것은 아니며, 현대적인 거리에 옛길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 안내사인과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 현대적인 생활과 기반시설을 영위하면서도 도시 전체가 옛길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역의 모습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녹아들어 지역적 자원과 활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Ⅲ. 시라카와고

#### 1.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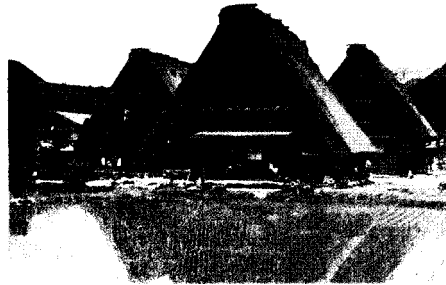
- 1976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중요전통건축물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995년유네스코 세계 유산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
-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인 갓쇼즈쿠리(合掌造)는 두 손을 합장한 모습의 가옥형태를 띠고 있다. 역새꼴로 엮은 집 내부는 3, 4층으로 나누어져 양잠에 이용되었으며, 갓쇼즈구리 가옥은 에도시대 말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조성되었다.
- 갓쇼즈쿠리 가옥의 지붕보수비는 국비(90%), 현(10%), 마을(2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서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 크기 및 색채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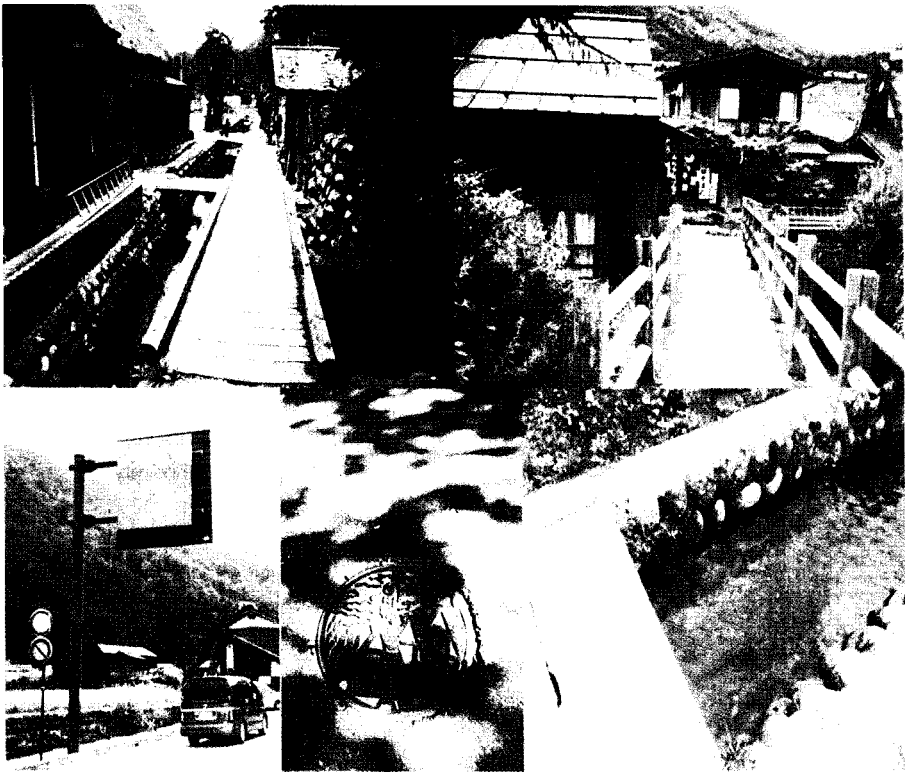
〈그림 21〉 시라카와고 전경(여름:좌, 겨울:우)



〈그림 22〉 전통가옥(갯쇼즈쿠리) 내부 모습



〈그림 23〉 시라카와고 마을



〈그림 24〉 시라카와고 안내사인, 맨홀, 마을풍물길